



2022 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사 65:17)

주일 예배 순서	오전 11시 인도 박현수 목사
*기 원	목 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434)</li> <li>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li> </ul>
기 도	최의순 장로
성경봉독	이사야 41장1-29절
특별찬양	은혜 -찬양대-
설 교	“나 여호와라... 내가 곧 그니라!” -박현수 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양	은혜
*봉헌기도/축도	박현수 목사

\*표는 일어서서

헌금은 입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Youtub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 금요 찬양 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Youtube QT 방송: 화요일, 목요일

PCA 한인중부노회 하이랜드교회

HIGHLAND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박현수 (Rev. Jason Hyunsoo Park, Pastor)

820 S. Milwaukee Ave. Vernon Hills, IL 60061 ☎(847) 634-6033

[www.highlandchurch.com](http://www.highlandchurch.com) (web) [highlandchurch1977@gmail.com](mailto:highlandchurch1977@gmail.com) (교회)

[parkhyunsoo@hotmail.com](mailto:parkhyunsoo@hotmail.com) (담임 목사) [hellofromhighland.com](mailto:hellofromhighland.com) (EM Web)

◀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교계 모임을 가면 대화의 주제는 단연 코비드 팬더믹으로 인한 교인의 감소입니다. 코비드 팬더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한 지 시간이 꽤 되었지만, 코비드 이전으로의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온 교회도 있고,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에 30% 정도의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의 감소 뿐 아니라 교회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코비드 이전에 미주 안에 한인교회의 수도 3500여 개였는데, 지금은 2500여 교회로, 1000여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은 숫자에 연연합니다. 교회 수나, 교인의 수가 많아지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집회에서 몇 명이 예수를 영접했는지 때문에 고무됩니다. 반면에 교회나 교인 수가 줄었다고 하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의 증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서 숫자가 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해서 숫자가 줄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진실성'입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보다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진실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박목-

◀ 광고 ▶

- PCA 한인중부노회 가을 정기노회: 10/11화 -10/12수 (벤엘 장로교회)
  - 강도사 고시: 신준식 전도사 (10/10 월)
- 협력기도: 권순조 권사, 김국태 집사
- 등록: 이수옥 성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다음주 기도: 김태종 장로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박현수  
E.M 목사 홍정모(Abraham)  
교육전도사 신준식(James, 유초등부)  
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중  
성가지휘 강수경  
반주 한은정  
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후원 선교사 ▶

MTW - 강충만  
캄보디아 - Nuth Sydeth  
NOVO(NK) - 서예레미야  
니카라구아 - 정영호  
REI - James Kang  
Global Hope - 조용중  
\*우리는 교인의 1%를 선교 보내는 1% 챌린지 교회입니다!